

# 공금 횡령·심사 소홀...농수축협 '도덕 불감증'

### 벼 판매대금 슬쩍 전무 직무정지·초과 대출 직원 감봉 광주·전남 올 전책 등 제재 10곳...숨방망이 징계 비난

농수축산인의 권익을 대변해야 할 광주·전남지역 농수축협·수협이 '공금 횡령' '대출 심사 소홀' 등 비위로 오명을 남기고 있다.

특히 도덕적 해이로 인한 농민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중앙회와 지역본부가 '숨방망이' 징계에 그치고 있어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1일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가 공개한 '제재내용 공시'에 따르면 올해 전책 등 제재를 받은 광주·전남지역 농수축협은 총 10곳으로 확인됐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제재를 받은 지역 농수축협은 전체 46개 가운데 7곳이었다. 전국 농수축협 비위 6건 가운데 1건은 광주·전남에서 이뤄진 셈이다. 수협의 경우 전체 11개 중 3개 전남지역 수협이 제재를 받았다.

광주·전남지역 농협의 경우 비위 유형별로 보면 임차보증금 확인 등 '업무 소홀'로 인한 손실 발생이 여수농협, 신안압해농협, 광양진상농협, 서광주농협 등 4곳으로 가장 많았다. 고흥농협, 광양농협, 용주농협 등 2곳은 고객 예탁금을 가로챘는

등 횡령 사실이 적발돼 뒤를 이었다. 진도선진농협은 예탁금을 부당하게 지급정한 사실이 올해 2월 국민신문고에 제기돼 지난 8월 전책조치를 받았다.

중앙회와 지역본부는 강력한 대처와 재발방지 대책 등을 내놓기 보다는 '숨방망이' 징계에 그치는 형편이다.

올해 농협 광주·전남본부 소속 지역농협에 내려진 제재 조치는 감봉이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책 10명이 뒤를 이었다.

담보물 채권을 소홀히 확인하면서 3억 2756만원의 손실을 부른 여수농협 직원과 담보물건을 처분해 대출금을 갠것다. 전남도농수축협은 대출 부실 심사와 감사 미실시로 지난 5월 같은 날 3건에 대한 징계를 한꺼번에 받았다. 여수수협은 4급 직원이 고객 예탁금 계좌 등에서 53차례에 걸쳐 5억4184만원을 무단 인출 횡령하면서 징계면직 처리됐고, 관리를 소홀히한 임원은 감봉·경고 조치를 받았다. 강진군수협 2급 직원(부장급)은 지난 2017년 11차례에 걸쳐 공익신고자의 계좌를 무단으로 조회해 징계를 받았다.

중앙회 측은 공시 제재 외에도 연말 조직 기강이 느슨해지면서 지역에서는 잇단 비위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조합원 2300여 명을 거느린 영암농수축협은 현 전무(55)는 2018년산 벼 판매대금 2100만원을 서너 차례에 걸쳐 횡령한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남주농협 측은 지난 11월 19일 해당 전무를 직무정지한 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에 들어가지 그제서야 지역본부와 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혀왔다. 해당 전무가 피해액을

변상했다는 이유로 지난 26일 열린 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올리지 않는 등 쉬쉬하면서 내부적으로 빈축을 사왔다.

이재민 남주농협조합장은 "이번 횡령사실로 조합원들에게 큰 실망을 줘서 안타까울 뿐"이라며 "조합감사위원회와 지역본부 감사국의 감사 절차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3·13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전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한 판결과 처벌도 잇따르고 있다.

광주지법은 1500여 명의 조합원에게 자신의 사진과 공약 문구가 담긴 화상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농협 조합장 A(63)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최고 선고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광주축협 전임 조합장 시절인 지난해 2월 비상임이사 선거를 앞두고 돈을 받은 대의원들에게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올해 9월 부과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농·축·수협 임직원의 금품수수, 횡령·배임 등 중대 범죄 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나, 고발조치는 극히 예외적으로 이루어지고 대부분 자체 징계로 종결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임직원 중대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 고발 조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광주·전남지역 농수축협은 경고 조치가 8명으로 가장 많았고 징계면직 1명, 감봉 2명, 변상 2명, 주의 2명, 징계 1명이 뒤를 이었다.

전남동부수협은 대출 부실 심사와 감사 미실시로 지난 5월 같은 날 3건에 대한 징계를 한꺼번에 받았다. 여수수협은 4급 직원이 고객 예탁금 계좌 등에서 53차례에 걸쳐 5억4184만원을 무단 인출 횡령하면서 징계면직 처리됐고, 관리를 소홀히한 임원은 감봉·경고 조치를 받았다. 강진군수협 2급 직원(부장급)은 지난 2017년 11차례에 걸쳐 공익신고자의 계좌를 무단으로 조회해 징계를 받았다.

중앙회 측은 공시 제재 외에도 연말 조직 기강이 느슨해지면서 지역에서는 잇단 비위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조합원 2300여 명을 거느린 영암농수축협은 현 전무(55)는 2018년산 벼 판매대금 2100만원을 서너 차례에 걸쳐 횡령한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남주농협 측은 지난 11월 19일 해당 전무를 직무정지한 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에 들어가지 그제서야 지역본부와 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혀왔다. 해당 전무가 피해액을



## 해양에너지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

해양에너지(대표 김형순)는 지난 26일 임직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시 남구청(청장 김병내),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한상원)와 함께 광주 시 남구에 있는 제석근로사업장에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김장김치 나눔은 해양에너지 임직원들이 매일 급여에서 일정액을 모금해 조성한 '만미기금'과 회사 '매칭그랜트기금'을 통해 우리 주변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돌봄 이웃에게 임직원들이 직접 김치를 담가 전달하는 해양에너지 김장김치 나눔 실천 사업이다.

김장김치 나눔 사업은 올해로 3년째 이어져 오고 있으며, 해양에너지 임직원들이 담근 김치는 남구의 각 주민센터를 통해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에 전달됐다.

또한, 해양에너지는 임직원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지난해부터 체지방분석(인바디) 검사를 측정하여 감량된 체지방만큼 쌀 기부를 해오고 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 미분양 증가에 목포 관리지역 지정

전남 영암·목포 2곳 97.4% 급증했다. 영암지역은 같은 기간 694세대에서 6세대 줄어 688세대가 미분양이다.

HUG는 미분양 세대가 전담보다 50% 이상 증가하거나, 미분양 우려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또 미분양 해소가 저조하면 관리지역으로 유지한다.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짓는 용도로 사업부지를 매입하려면 HUG의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 사전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박정욱 기자 jwpark@

## '젊은 피' 수혈...지역 경제계 잇단 인사

### 광주신세계 대표 이동훈 농협 광주본부장 강형구



이동훈 대표 강형구 본부장

연말을 맞아 지역 경제계에 50대 초반 '젊은 피' 수혈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신세계그룹은 지난 29일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장인 이동훈(50) 상무를 신임 ㈜광주신세계 대표이사로 임명하는 등 12월 1일자로 백화점부문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경남 마산 출신인 이 신임 대표는 1993년 신세계에 입사한 뒤 마케팅 분야에서 활동해왔다. 신세계백화점 의정부점장을 거쳐 영등포점장을 맡은 뒤로 10년 만에 처음 대대적인 개선 공사를 추진하며 영등포점을 수도권 남부상권 광역 백화점으로 키워냈다.

이번 인사에서 차정호 신세계인터내셔널 대표가 신세계 대표에 승진 내정됐고 최민도 전 ㈜광주신세계 대표이사는 신세계디에프 영업본부장으로 직위를 옮겼다.

최근 대형 유통매장의 매출 부진으로 이마트·신세계 등 유통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롯데그룹의 유통 계열사도 이달 중순에 인사가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농협중앙회도 인사를 단행하고 강형구(53) 농협 장흥군지부장을 신임 광주 지역본부장으로 선임했다.

강 신임 본부장은 무안 출신으로 농협 전남본부 경제지원팀장, 농촌지원팀장, 동순천 지점장 등을 역임한 뒤 2017년부터 올해까지 장흥군지부장으로 활동했다.

연말까지가 임기인 김일수 현 광주본부장은 농협생명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대형 마트 성탄 분위기 연출 1일 롯데마트 광주월드점 직원들이 2층 '페이 지그린' 매장에서 성탄절을 앞두고 트리와 전구 등 관련 상품 100여 종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마트 제공>

## 광주 금호·꽃담 등 10곳

### '백년가게' 추가 선정

광주 음식점 금호(광산구)와 꽃담(동구), 광양의 한국식당, 목포 풍년식당, 화순 화성식육식당이 중소벤처기업부 '백년가게'로 추가 선정됐다. 또 도소매업 부문에서는 광주 동구의 거북이안경, 동아실크, 대성전자가 추가됐고, 순천 중앙서점과 해남 조영욱꽃방도 '백년가게'에 포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4차 '백년가게'로 전국 79개 업체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백년가게는 전국 288곳으로 늘어났다. 음식점업이 205개 업체, 도소매업이 83개 업체다. 이 중 광주는 7곳, 전

남은 13곳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 로또복권 (제1887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8	14	17	27	36	45	10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2,535,268,688	8
2 5개 숫자+ 보너스숫자일치						51,217,550	66
3 5개 숫자일치						1,415,561	2,388
4 4개 숫자일치						50,000	114,719
5 3개 숫자일치						5,000	1,885,924

**방치된 묘지 70%(추정)**

#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 062-412-2800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수목장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보성수목장**

보성군 노동면 소재  
순천화장장에서 52km(약 50분 소요)

**함평수목장**

함평군 대동면 소재  
광주화장장에서 46km(약 50분 소요)  
목포화장장에서 39km(약 35분 소요)